

엠폍스, 일주일새 5명...지역사회 확산 우려

6~10번째 환자, 해외 여행력 無...국내 감염 추정 위기경보 '주의' 격상...“대규모 전파 가능성 낮아” 소규모 유행 장기화 가능성도...치료제 비축 결정

국내 엠폍스(MPOX·원숭이 두창) 감염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5명이나 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엠폍스 특성상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만큼 역학조사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엠폍스 감염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특히 6번째(7일), 7·8번째(12일), 9번째(13일), 10번째(14일) 등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모두 잠복기인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엠폍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으며, 1~5번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 유입 혹은 관련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었다.

방역 당국은 최근 발생한 6~10번째 확진자는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국증 중앙

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은 감염원 확인·경로 등 역학조사를 시행하면서 지역 사회 추이와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주변 국가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역 당국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엠폍스의 치명률이 0.13% 수준으로, 중증도도 1% 미만인 데다, 감염 후 2~4주 내 대부분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접촉이나 피부접촉 등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만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다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급처럼 나올 경우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임 단장은 “확진자가 감염원 추정 인물을 익명으로 만나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터넷 ID 등을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인근 국가에서 엠폍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기준 일본 누적

98명, 대만에서 누적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 단장은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환자 발생이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감소하는 반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며 “주변 국가의 발생으로 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 당국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엠폍스의 치명률이 0.13% 수준으로, 중증도도 1% 미만인 데다, 감염 후 2~4주 내 대부분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접촉이나 피부접촉 등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만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적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다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급처럼 나올 경우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임 단장은 “확진자가 감염원 추정 인물을 익명으로 만나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터넷 ID 등을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인근 국가에서 엠폍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기준 일본 누적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 필요하다”면서 “성소수자 소사이어나 지원자는 단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역사회 내 소규모 유행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방역 당국의 백신 치료제 비축과 개발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원 수석상임연구위원은 “향후 엠폍스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도착화되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산 엠폍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엠폍스 환자가 아주 소수지만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치료제와 비축량에도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상을 보고 추가 비축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백신(JYNNEOS) 5000명 분을 도입해 필수 의료진 등은 사전 접종을 완료했다. 시·도별 지정 보건소 등에 360회 분을 공급했으며 현재 남은 9640회 분은 질병청 지정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이다.

엠폍스 치료 중등 대응을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도 지난해 7월 국내에 도입해 현재 17개 시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해남교도소, '2023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해남교도소는 지난 11일 해남읍 카멜리아 웨딩홀에서 교정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담양경찰,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 대상 교육 실시

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담양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강의를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경찰, 마약범죄 척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광양경찰은 14일 최근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으로 협박사건 등 각종 마약류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경찰, 치안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 보고회 실시

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장, 과장, 계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 남부소방, 마음의 힐링 위한 시 낭송 콘서트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시 낭송 콘서트를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 심포잇는 조직문화 위한 3無 소통간담회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조직문화 내 유대감 형성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휘관과 함께 하는 3無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만취운전’ 신혜성, 이번주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10km 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씨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증상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씨는 대리 기사를 보낸 뒤 약 10km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재환기자

간호법 폐기

간호법 반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서울 송레온 인근 도로에서 간호법 제정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日 “한국산 마카롱서 대장균군 검출

대장균군, 자연 상태에서 쉽게 발견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산 마카롱에 대해 대장균군 부적합을 이유로 수입 부적합 조치를 내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한국 업체가 제조한 마카롱 3종에서 대장균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반송 및 폐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수출 전용 제품”이라며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산 마카롱에 대해 수입 부적합 판정은 내린 것은 자국의 대장균군(대장균군)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먼저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이해해야 한다. 대장균군은 대장균을 포함해 비슷한 유형의 여러 세균을 일컫는 것이다. 이 대장균군에 포함된 대장균도 병원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병원성 대장균 중에서 유명한 것이 O-157이다. 이 대장균은 설사와 혈변, 적혈구 파괴 등 직접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균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카롱과 같이 그대로 섭취하는 과자, 냉동식품 등에 대해서는 대장균군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수입을 허용한다. 즉 병원성이 없는 대장균이라도 무조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한국 식약처는 마카롱 등에 대해서는 대장균으로 관리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인 대장균을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그렇다면 대장균군은 얼마나 유해한 균일까. 일부에서는 “대장균군은 인체에 상존하는 균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아니다”라며 “공기와 같은 자연계에서 쉽게 발견되는 세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장균군 검출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장균 자체는 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니다”면서도 “다른 해로운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알려주는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